

여성 흡연자의 흡연 동기와 음주 및 섭식효능감과의 관계 연구

이 기 학 김 윤 경 한 종 철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여성 흡연자의 흡연 동기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남녀 차이(남성 흡연자 대 여성 흡연자)와 흡연 경험 유무(여성 흡연자 대 여성 비흡연자)에 따른 흡연 기대감 및 동기를 측정하였다. 또한 여성 흡연자의 흡연 동기와 음주 기대감, 섭식효능감과의 관계를 측정함으로써, 여성 흡연자의 고유한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흡연 동기를 부정 정서(화, 짜증스러움, 불안함) 통제 동기, 휴식 및 긴장 이완 동기(자극이 없는 단순한 상황의 극복 동기), 습관적 흡연 동기, 지적 자극 및 호기심 동기, 사회적 매력 동기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이전 연구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흡연 동기에서 남녀 간에 차이를 보였다. 즉, 남성 흡연자는 단순 반복적인 상황 또는 지루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흡연을 하는 반면에, 여성 흡연자는 자신의 부정 정서를 통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일차적인 흡연 목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흡연자의 음주 및 섭식효능감을 살펴본 결과, 흡연 집단의 경우에는 여성도 남성만큼 음주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흡연 집단은 비흡연 집단에 비해 식사에 대한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흡연 집단이 비흡연 집단에 비해 음주 및 섭식과 관련된 인내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었다.

개인이 흡연을 하게 되는 발달과정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Leventhal & Cleary, 1980). 그들에 의하면 첫 단계는 준비단계(preparation)로서 성인의 흡연을 모방하거나 광고 등으로부터 받은 인상에 의해 흡연에 대한 태도와 지식을 획득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또래 혹은 가족 등의 사회적 압력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앞으로의 지속적인 흡연 여부를 결정하고 흡연에 대한 지식과 신념을 형성하는 실험적 단계인 시작단계(initiation)

이다. 이어서 흡연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흡연을 하는 상황 또는 장면이 이전 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해지는 정기적인 흡연가 단계(regular smoker)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다양한 심리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유지 단계(maintenance)로 진행된다.

이상과 같은 발달 단계에서 개인이 흡연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는가 하는 모델로는 크게 Ajzen과 Fishbein(1980)의 모델과 Jessor와 Jessor(1977)의 모델을 들 수 있다. Ajzen 등(1980)은 흡연 행동의

행동적 의도를 예언할 수 있는 변인으로 흡연 결과에 의한 신념 등이 흡연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흡연에 대한 태도(attitude), 의미있는 타인-청소년의 부모, 교사, 또래 등-이 갖는 기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믿음과 그 기준을 따름으로써 형성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타인과의 동일시 동기를 나타내는 기준적 신념(normative belief), 그리고 개인이 흡연에 대한 능력과 흡연 행동이 의도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리라는 지각된 행동 통제감(perceived behavior control) 등이 있다. 이는 흡연 행동이 일반적인 태도나 가치, 기준에 의해 개인의 주관적 범위 내에서 평가되는 것이다. 또한 Jessor 등(1977)은 흡연의 시작에 대한 예언을 하는 변인으로 일반적인 성격 변인과 지각된 환경 변인을 가정하고 있다(Chassin, Presson, Bensenberg, Corty, Olshavsky, & Sherman, 1981).

지금까지 수행된 흡연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첫째가 흡연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인 흡연의 유해론과 유해한 흡연을 금지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금연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1953년에 Sloan-Kettering 연구소에서 수행된 타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흡연과 비행에 관한 상관 연구(김성이, 1988; 이근철, 이길홍, 민병근, 1987; 이길홍, 이재광, 나철, 박두병, 김현수, 민병근, 1985; 백명기와 민병근, 1981; 민병근, 1980; 주왕기, 허문영, 최영옥, 노성규, 1983), 그리고 기업체에서의 금연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등(Glasgow, Hollis, Pettigrew, Foster, Givi, & Morrisette, 1991; Mermelstein, Lichtenstein, & McIntyre, 1983; Sterling, & Weinkam, 1976)이 흡연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 예가 될 수 있다.

반면에 개인이 담배를 피웠을 때 느끼게 되는 심리적 상황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수행되었다. 흡연을 하면 개인에게 심리적 강화(psychological reinforcement)를 주어 각성이 되며 또한 긴장상태가 이완되어 어려운 고등 인지과정을 필요로 하는 과업을 하는데 있어 집중력이 증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 또한 흡연을 함으로써 주의가 각성되고, 학습에 대한 반응시간이 빨라지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개인이 지각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Chassin, Presson, Sherman, & Edwards, 1992). 이는 흡연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이완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흡연을 하면 기쁘고, 분노, 긴장 또는 우울이 감소하는 등의 감정 상태를 보고하고 있다. 즉 흡연이 개인의 안정감과 통제감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흡연가들이 기대감을 갖게 된다.

개인이 흡연을 하게 되는 관련 변인을 살펴보면 크게 개인적 요소, 심리적 요소, 환경적 혹은 사회적 요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개인적 요소에는 연령, 성, 교육 수준, 성격, 유전적 소인 등의 요인이 있다(Chassin, Presson, Sherman, & Edwards, 1992). 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우리 나라의 경우 전체 흡연 인구 중 남성이 92.1%, 여성이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다량 흡연인구에 있어 각각 83.7% 대 57.9%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나(한국 산업경제연구소, 1992), 남성의 흡연 증가율에 비해 여성의 흡연 증가율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에 따른 흡연 양상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Jessor, Donovan, & Costa, 1991). 20대와 30대에서 가장 높은 흡연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흡연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직업 유형에 따른 흡연의 시작 연령을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Sterling & Weinkam, 1976), 사무직 등은 대부분이 20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 반면에, 전문직, 기술직의 경우에는 대부분 20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개인이 갖는 흡연에 대한 기대감이 직무 유형 및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심리/사회적 요인으로서는 성인에 대한 모방, 또래 집단과의 관계 등과 같은 발달적이고 사회심리적인 요소 뿐 만 아니라 흡연을 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이완감, 긴장의 감소, 인지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집중력과 문제해결 능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지각과, 흡연을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관적 지각 및 인지적 정보처리 과정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Chassin 등

(1992)은 청소년이 흡연을 하는 이유를 성인의 역할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일시의 개념으로의 가상적 성숙(pseudomaturity)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성인의 권리이며 상징인 흡연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개인 스스로 학생의 신분에서 성인의 역할로 옮겨가는 성숙의 감정을 느끼고자 하는 것이다. 최초로 흡연을 시작한 이후 또래들의 관심 등과 같은 사회적 강화, 그리고 독립성, 열정, 성적 매력 등과 같은 대인관계적 요소를 통해 실험적인 흡연을 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인 흡연을 함으로써 흡연이 하나의 습관 행동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습관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내/외적 압력이 생길 경우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흡연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고정관념적인 성역할 사회화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여성이 흡연을 함으로써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하려는 동기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Chassin, Presson, Sherman, & Edwards,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남녀 흡연자들이 흡연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기대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에 따른 흡연 동기에서의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 흡연자들의 흡연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흡연에 대한 기대감이 흡연자들의 심리적 특성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흡연자들의 특징적이고 독특한 심리적 특성-특히, 섭식효능감, 음주의존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목적

흡연의 잠재적 기능에 대한 지각은 개인에 따라 달라지며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예를 들어, 흡연은 일차적으로 불안감 감소, 각성 수준의 향상 등과 같은 주관적 지각 및 기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흡연을 함으로써 집중력, 문제해결 능력 등과 같은 과제 수행에서의 향상 등을 통하여 이차적인 만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인이 느끼는 지각

된 만족은 사회적 이미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개인은 흡연자들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는 소속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나라 여성 흡연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한국산업경제연구원, 1992). 사회적으로 여성 흡연 인구가 확산되는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 흡연자들의 흡연 행동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즉, 여성 흡연자가 어떤 흡연 동기를 가지고 흡연을 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여성 흡연자를 구분지을 수 있는 독특한 심리적 특성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지루하거나 단순한 상황에서 권태로움을 없애기 위해 주로 흡연을 하는 반면에, 여성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이 상해 있을 때 흡연을 한다(Frith, 1971).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는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흡연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대부분의 여성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움으로써 더 세련되게 보이고, 특히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라는 개인적 지각을 가지고 있어 흡연 행동을 대인관계의 수단으로 사용한다(한종철, 오경자, 이기학, 1995; Chassin, Presson, Sherman, & Edwards, 1992).

한편, 흡연 행동은 신체적 발달 과정에서 구강기 특성과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흡연 행동과 음주 및 섭식 행동과의 관계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여성 흡연자의 흡연 행동과 섭식 및 음주 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흡연 유무에 따른 흡연 동기를 살펴보고, 성별에 따라 흡연 동기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흡연 집단 내에서의 성별에 따른 흡연 동기에서의 차이를 알아본다.

둘째, 섭식효능감, 음주 태도와 흡연 동기를 비교해 봄으로써 식사 및 음주 태도가 개인의 흡연 행동

및 흡연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세째, 여성 흡연 집단과 여성 비흡연 집단간에 심리적 특성에 따른 흡연 동기를 비교함으로써, 여성 흡연자의 고유한 심리적 특성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조사 대상자

전체 응답자 2210명 중 596명(27.0%)이 흡연자였고, 1614명(73.0%)이 비흡연자였다. 이들 조사 대상자들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 응답자 801명 중 47.3%(379명)가 흡연자이었으며 비흡연자는 52.7%(422명)인 반면에, 여성 응답자 중 흡연자는 15.4%(217명), 그리고 비흡연자는 84.6%(1192명)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현황을 표 1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분포 현황

단위: 명 ()안은 %			
	전 체	남 성	여 성
흡 연 자	596(27.0)	379(47.3)	217(15.4)
비흡연자	1614(73.0)	422(52.7)	1192(84.6)
전 체	2210(100.0)	801(100.0)	1409(100.0)

조사 도구

우리 나라 여성 흡연자의 흡연 동기와 심리적 특성-음주 기대감, 섭식효능감-을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흡연 동기 측정 도구: 개인이 흡연을 하는 이유가

표 2

흡연 동기에 대한 요인 구조

요 인	문항번호	요인부하량	내적일관성 신뢰도
부적 정서 통제 (13문항)	26	.754	.92
	29	.742	
	17	.707	
	26	.696	
	30	.691	
	23	.683	
	19	.664	
	13	.627	
	14	.621	
	21	.593	
	31	.587	
	32	.547	
	28	.506	
휴식 및 긴장이완 (6문항)	12	.821	.89
	1	.810	
	18	.738	
	27	.737	
	22	.728	
	8	.721	
습관적 흡연 (5문항)	4	.798	.84
	10	.785	
	3	.704	
	7	.603	
	9	.583	
지적 자극/호기심 (4문항)	16	.780	.83
	15	.760	
	20	.611	
	24	.597	
사회적 매력 (4문항)	5	.826	.66
	11	.781	
	6	.669	
	2	.558	

무엇이며, 흡연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기대감이 무엇인지를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 Jacobs, Crane과 Russell(1983)이 제작한 Smoking Motivation

Questionnaire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한종철 등 (1995)이 제작한 32문항의 흡연 동기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크게 부정적 정서 통제(13문항), 휴식 및 긴장이완(6문항), 습관적 흡연(5문항), 지적활동 및 호기심(4문항), 사회적 매력(4문항)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흡연 동기에 대한 5가지 하위 영역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요인분석은 공통분산 뿐만 아니라 문항 특유의 분산을 나타내는 고유 분산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됨으로 공통요인 분석의 모형을 택하였으며 다중 상관 제곱치를 공통분의 추정치로 사용하는 주축분해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 5개의 고유치는 각각 5.03, 2.43, 2.03, 1.64, 및 1.32이었으며, 요인 5개에 의한 누적 분산 비율은 64.0%이었다. 한편 흡연 동기를 측정하는 하위 5개 요인의 내적 일치도는 .65에서부터 .92까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기대감 측정 도구: 개인의 음주 기대감을 측정하기 위해 Harrell과 Wirtz(1989)가 제작한 Adolescent Drinking Index(ADI) 중 음주 동기를 나

표 3
음주 기대감 척도에 대한 요인 구조

	음주 동기
때때로 술들을 느낄 때 술을 마신다	.785
때때로 화가 나거나 좌절했을 때 술을 마신다	.744
외로움을 느낄 때 술이 도움이 된다	.674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진정하기 위해 술을 마신다	.636
중증 음주에 대해 생각한다	.469
취하기 위해선 전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셔야 한다	.393
지루함을 느낄 때 술이 도움이 된다	.342
고유치	3.20
분산비율	32.00%

타내는 척도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문항을 수정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래에는 Varimax 회전 방식으로 주축 요인분석을 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원래 2개의 요인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으나, 두 번째 요인의 3개 문항은 비교적 해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총 분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첫 번째 요인(32%) 만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3.20이었다. 이 때 음주 동기 측정 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82로 나타났다.

섭식효능감 측정 도구: 개인의 섭식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Glynn과 Ruderman(1986)에 의해 제작된 Eating Self-Efficacy Scale(ESES)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섭식효능감이란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식사 욕구를 통제할 수 있을 때 얻게 되는 자기 효능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25문항 전체에 대한 사전 조사에서 나타난 공통요인 분석 모형에 의한 주축분해를 통해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었다. 요인분석 결과 25문항은 2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사회적 수용 상황 요인(11문항)과 부정적 정서 상황 요인(14문항)을 포함하는 2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2개의 요인에 의한 총 분산이 53.60%로 나타났다. 이 때 요인 1의 고유치가 9.01이며 요인 2의 고유치가 4.40이었으며, 25개의 문항 모두에서 요인부하량이 .40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두 요인의 내적 일치도는 부정적 정서 상황 요인이 .96, 그리고 사회적 수용 상황 요인이 .88로 나타남으로써 만족스러운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결 과

개인이 흡연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 응답자 2210명을

대상으로 성별과 흡연 유무에 따른 흡연 동기를 살펴

표 4.

심식효능감 척도에 대한 요인 구조

	부 적 정서상황	사회적 수용상황
화났을 때	.880	-.029
불쾌할 때	.854	.006
신경질 날 때	.839	.144
과민할 때	.828	-.075
초조할 때	.819	-.083
짜증날 때	.814	.032
자기자신에게 화가 날 때	.809	-.025
긴장했을 때	.806	-.086
우울할 때	.790	.109
안절부절할 때	.786	.114
불안할 때	.750	.058
일이 안되서 화가 날 때	.737	.130
걱정되거나 근심있을 때	.688	.134
눈쟁 후에	.475	.165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놓여 있을 때	-.138	.819
집에 음식이 많이 있을 때	-.028	.780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	-.036	.686
방과 후나 일이 끝난 후	.168	.660
외식하거나 저녁식사 파티가 있을 때	-.011	.639
친구와 함께 식사할 때	.264	.634
힘내고 있을 때	.156	.590
여유있게 음식을 먹고 있을 때	-.099	.575
배가 고플 때	-.103	.563
식사준비를 할 때	.245	.472
주말이나 휴일에	.259	.431
고 유 치	9.01	4.40
분산비율	36.00%	17.60%

보았다. 표 5에 의하면, 남녀 모두 흡연 경험자들이 흡연 비경험자들 보다 모든 흡연 동기 요인에서 높은 흡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감을 갖고 흡연을 하고자 하며 실제 흡연 행동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남성 흡연 집단에서는 휴식을 하거나 단순/반복적인 작업과 같은 상황 등 긴장이 이완되어 있을 때에 가장 높은 흡연 욕구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여성 흡연 집단에서는 짜증나거나 불안한 경우에 흡연을 함으로써 개인의 부적 정서를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성별과 흡연 유무에 따른 흡연 동기 ()안은 표준편차

흡연 동기	남	성	여	성		
	흡 연	비흡연	t	흡 연	비흡연	t

전	체	250(.39)	2.06(.57)	12.95***	237(.47)	1.91(.58)	12.36***
부적정서통제		2.96(.58)	2.43(.79)	10.84***	2.93(.71)	2.28(.87)	11.88***
휴식/긴장이완		3.02(.48)	2.18(.76)	18.85***	2.79(.71)	1.92(.71)	16.49***
습관적	흡연	2.27(.59)	1.81(.74)	9.70***	1.97(.63)	1.65(.67)	6.79***
지적	활동	2.06(.69)	1.82(.68)	4.91***	2.10(.74)	1.81(.68)	5.67***
사회적	매력	2.20(.58)	2.08(.71)	2.59**	2.04(.62)	1.94(.70)	2.27*

* p<.05 ** p<.01 *** p<.001

성별에 의한 흡연 동기를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남성 흡연 집단의 흡연 동기가 여성 흡연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t=3.60$, $p<.001$.

구체적으로 흡연 동기의 5가지 하위 요인에 대해서 남성 흡연 집단과 여성 흡연 집단의 흡연 동기를 살펴본 결과, 휴식 및 긴장 이완, $t=4.23$, $p<.001$, 습관적 흡연, $t=5.28$, $p<.001$, 및 사회적 매력, $t=3.05$, $p<.01$ 에서 남성 흡연 집단이 여성 흡연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흡연 동기를 보였다.

남성 흡연 집단에서의 흡연 동기 순위는 휴식 및 긴장 이완, 부적 정서 통제, 습관적 흡연, 사회적 매

력, 그리고 지적 자극 및 호기심의 순서로 나타난 반면에, 여성 흡연 집단의 경우에는 부적 정서 통제, 휴식 및 긴장 이완, 지적 자극 및 호기심, 사회적 매력, 습관적 흡연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 흡연자의 경우, 담배를 피우게 되는 동기로서 화가 나거나 짜증스러움과 같은 불편한 부적 정서를 통제하고자 하는 동기보다는 자극이 별로 없는 단조롭고 권태로운 상황에서 권태로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기대감이 일차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에, 여성 흡연자는 짜증스럽거나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등과 같은 기분 나쁜 부적인 정서를 해소하기 위하여 흡연을 하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 흡연자의 흡연 동기가 음주 및 섭식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흡연 유무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음주 기대감 정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었다. 표 7에 의하면, 흡연 집단인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음주 기대감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 아닌 반면에, 비흡연 집단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주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다, $t=2.59, p<.05$.

표 7

흡연 유무에 의한 남녀의 음주 기대감

() 안은 표준편차

구 분	흡 연 집 단			비 흡 연 집 단		
	남 성	여 성	t	남 성	여 성	t
음 주 태 도	5.49 (2.89)	5.58 (3.06)	-36	4.04 (2.99)	3.64 (2.60)	2.59*

* $p<.05$

남녀의 흡연 유무에 따른 섭식효능감의 태도를 살펴 본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었다. 표 8에서 보듯이 흡연 유무와 무관하게 여성이 남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섭식효능감을 보이고 있었다.

흡연 유무에 의한 섭식효능감을 살펴 본 결과, 남성의 경우에는 비흡연 집단($M=61.38, SD=15.99$)이 흡연 집단($M=57.92, SD=16.53$)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섭식효능감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t=-2.98, p<.01$. 즉, 남성의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하여 식사 통제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흡연 유무에 따른 섭식효능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t=-.42, ns$.

표 8

흡연 유무에 의한 남녀의 섭식효능감

() 안은 표준편차

구 분	흡 연 집 단			비 흡 연 집 단		
	남 성	여 성	t	남 성	여 성	t
전 체	57.92 (16.53)	65.20 (18.06)	-4.96***	61.38 (15.99)	65.77 (16.58)	-4.56***
사 회 적 상 황	32.04 (12.53)	35.82 (14.24)	-3.22**	32.94 (11.91)	36.43 (12.78)	-4.83***
부 적 상 황	25.81 (8.21)	29.25 (8.47)	-4.83***	28.38 (8.31)	29.28 (7.81)	-1.98*

* $p<.05$

섭식효능감을 대인관계 및 외적 상황에 대한 통제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적 상황 요인과 개인의 부적 정서 상태에 기인한 식사 욕구를 나타내는 부적 상황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남성의 경우에는 개인이 화가 나거나 불안한 상황 등 부적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는 비흡연 집단($M=28.38, SD=8.31$)이 흡연 집단($M=25.81, SD=8.21$)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섭식효능감 점수를 보였다, $t=-4.35, p<.001$. 한편, 여성의 경우에는 사회적 상황 요인, $t=-.58, ns$ 과 부적 상황 요인, $t=-.05, ns$ 이 비흡연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여성 집단을 중심으로 흡연에 대한 기대감, 흡연 동기, 음주 기대감, 섭식효능감을 살펴보고, 여성 흡연자의 심리적 특성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런 분석은 궁극적으로 여성 흡연자들과 여성 비흡연자간의 비교를 통하여 여성 흡연자들의 심리적 특징을 살펴보고, 아울러 남성 흡연 집단과의 비교를 통하여 여성이 흡연을 하게 되는 상황 및 흡연에 대한 기대 요소를 파악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흡연자의 흡연 동기는 부정적 정서 통제, 휴식 및 긴장이완, 지적 활동 및 호기심, 사회적 매력, 습관적 흡연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성 흡연자는 휴식 및 긴장이완, 부정적 정서 통제, 사회적 매력, 지적 활동 및 호기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경우 지루하거나 단순한 상황에서 권태로움을 없애기 위해 주로 흡연을 하는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이 상해 있을 때 주로 흡연을 한다는 선행 연구(Frith, 1971)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흡연을 하는 사람이 비흡연자들보다 생활 속의 사건들을 극복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취약하며, 이런 취약성이 흡연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따라서 음주와 식사에 대한 조절에서도 흡연 집단이 비흡연 집단보다 통제능력이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음주 기대감에 있어서 남녀 집단 모두에서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생활 상황에서 음주에 대한 욕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흡연 집단 내에서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의 음주 기대감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비흡연 집단 내에서는 남성 집단이 여성 집단보다 음주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음주의 빈도가 높고 음주에 대한 욕구가 강하는데, 이것은 비흡연 집단의 경우에는 일치하는 내용이지만, 흡연 집단의 경우에는 여성 집단도 남성 집단만큼 음주에 대한 강한 욕구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섭식효능감을 대인관계 및 외적 상황에 의한 통제 능력을 나타내는 요인인 사회적 상황과 개인의 부정적 정서 상태에 기인한 식사 욕구를 나타내는 부정적 상황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에는 화가 나거나 불안한 상황 등 부정적 정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비흡연 집단일수록 식사 욕구에 대한 높은 통제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결과는 흡연 집단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식사 욕구를 통제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에 비해 섭식과 관련된 인내력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흡연 행동은 음주 행동이나 섭식 행동과 어느 정도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문헌

- 김성이(1988). 청소년의 약물남용실태와 분석, 청소년 약물남용에 관한 적십자 심포지움.
- 민병근(1980). 한국 청소년 대마초 흡연실태에 관한 종단적 연구, 한국의 과학, 12(3), 187-201.
- 백명기, 민병근(1981). 비행 청소년의 약물사용 빈도 및 약물사용 양상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20(2), 234-248.
- 이근철, 이길홍, 민병근(1987). 청소년 음주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분석, 신경정신의학, 26(2), 334-348.
- 이길홍, 이재광, 나철, 박두병, 김현수, 민병근(1985). 청소년 비행의 약물 상관변인 분석, 한국의 과학, 17(2), 130-147.
- 주왕기, 허문영, 최영옥, 노성규(1983). 중고등학생들의 약물남용실태(1982). 사회과학연구, 18, 161-183. 강원대학교.
- 한국 산업경제연구원(1992). 제조담배 가격책정과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 담배인삼공사.
- 한종철, 오경자, 이기학(1995). 한국인의 연령과 사회-심리적 요인에 따른 흡연 행동 분석, 흡연위생연구

- 7, 110-198.
- Ajzen, I., & Fishbein, M. (1980). The prediction of behavior from attitudinal and normative variabl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6, 466-487.
- Chassin, L., Presson, C. C., Bensenberg, Corty, E., Olshavsky, R. W., & Sherman, S. J. (1981). Prediction of adolescent's intentions to smoke cigarett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445-455.
- Chassin, L., Presson, C. C., Sherman, S. J., & Edwards, D. A. (1992). The natural history of cigaret smoking and young adult social rol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 328-347.
- Frith, C. D. (1971). Smoking behavior and its relation to the smoker's immediate experience.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0, 73-78.
- Glasgow, R. E., Hollis, J. F., Pettigrew, L. M., Foster, L., Givi, M. J., & Morrisette, G. (1991). Implementing a year long worksite-based incentive program for smoking cessation. *Americ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5, 192-199.
- Glynn, S. M., & Ruderman, A. J. (1986).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Eating Self-Efficacy Scal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0, 403-420.
- Harrell, A. V., & Wirtz, P. W. (1989). *ADI professional of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Jessor, R., & Donovan, J. E., & Costa, F. M. (1991). *Beyond adolescence: Problem behavior and young adult development*.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essor, R., & Jessor, S. L. (1977). *Problem behavior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of youth*. New York: Academic Press.
- Leventhal, H., & Cleary, P. D. (1980). The smoking problem: A review of the research and theory in behavior risk modification. *Psychological Bulletin*, 88(2), 370-405.
- Lichtenstein, E. (1982). The smoking problem: A behavioral perspectiv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 804-819.
- Mermelstein, R., Lichtenstein, E., & McIntyre, K. (1983). Partner support and relapse in smoking-cessation program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3), 65-466.
- Prochaska, J. O., & DiClemente, C. C. (1983). Stages and Processes of self-change of smoking: Toward an integrative model of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390-395.
- Spielberger, C. D., Jacobs, G. A., Crane, R. S., & Russell, S. F. (1983). On the relation between family smoking habits and the smoking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Psychology*, 32, 53-69.
- Sterling, T. D., & Weinkam, J. J. (1976). Smoking characteristics by type of employment. *Journal of Occupational Medicine*, 18, 743-754.
- Warnecke, R. B., Rosenthal, S., Graham, S., & Manfredi, C. (1978). Social and psychological correlates of smoking behavior among black wome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397-410.

A Study on the Relation of Smoking Motivation and Drinking/ Eating Self-efficacy of Female Smokers

Lee, Ki Hak Kim, Yoon Kyoung Han, Jong Chul

Yonsei University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smoking motivation of female smokers. Specifically, smoking expectation and motivation were investigated with regard to sex (male smokers vs. female smokers) and smoking experience (female smokers vs. female non-smokers). In addition, female smok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were explored by observing the relations among drinking expectation, eating self efficacy, and smoking expectation. Smoking motivation was divided into 5 factors: need for negative affect control (anger, irritation, anxiety), need for pleasurable relaxation (boring situation with non-stimulus), habitual smoking, need for mental activity, and need for social appeal. The main results revealed that there was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in the smoking motivation, as shown in previous studies. More specifically, the major findings were as the following: (1) Compared to male smokers who in general expect to overcome a boring and lack of stimulus situation, the female smokers want to control their negative affects by smoking in an anxious and irritating situation. (2) Regarding the relation between drinking expectation and eating self efficacy, the female smokers have a strong motivation as much as the male smokers do. (3) Compared to the non-smoking group, the smoking group is relatively lack of control over eating: the non-smoking group have control over drinking and eating compared to smoking group. The present study implies the necessity of further study focusing on the relation between smoking motivation and the individual's developmental stage, perhaps such as oral stage.